



1. 등·하원 시간

1) 인사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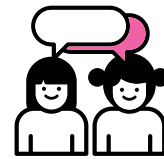
인권 문 열기

동작 인사로 웃어봐요.



우리에게 어떤 인사가 있을까요?

옆에 앉은 선생님과 즐거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동작 인사'를 해보세요.



▶ 준비물: 함께하는 선생님들

▶ 진행 방법:

- ①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육참여자인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인사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 ② 격려와 즐거움, 행복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동작 인사 방법을 고안합니다.
- ③ 아동인권 선임교사와 교육참여자는 함께 소리 내어 숫자(하나, 둘, 셋)를 셉니다.
- ④ 동시에 자신이 고안한 '나만의 동작 인사'를 합니다.
- ⑤ 다양한 동작 인사 중에 '동일 인사 방법'을 표현한 참여자는 게임에서 하차합니다.
- ⑥ 같은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동시에 숫자를 셋까지 세고, '동일 인사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은 게임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인사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 ⑦ 시간 단축 차원에서 인사 방법 예시를 아래와 같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 하이파이브, 하이텐으로 인사할 수도 있어요.
 - 주먹인사도 있고, 외계인 인사인 ET 인사도 있고요.
 - 하트 인사나 윙크 인사도 재밌어요. 밝은 목소리로 두 손만 흔들어 인사도 되네요.
 - 엉덩이를 맞부딪히는 인사도 재밌겠네요.
 - 악수, 포옹, 크로스,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푹푹딱딱 인사는 어때요.
 - 또 다른 나만의 인사 방법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 ⑧ 나만의 인사를 나누고 전하며,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짧게 2, 3명의 이야기를 공유한 후, 아래 의미 되새기기를 합니다.

▶ 의미 되새기기: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격려되고, 행복해지는 정서적 교류의 시간이 인사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익숙한 인사 방법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사'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낯설지만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보육교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워크시트 1-1

「어린이집 등·하원 다시 보기」

어린이집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 시, 영유아 권리 관점으로 인사 방법 다시 보기입니다. 교사로부터 영유아는 자기 의사와 표현이 존중되며, 다양한 인사 방법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어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림 1> 강요된 인사



<그림 2> 다양한 인사방법과 선택권

- ❶ <그림 1>과 같이 강요된 인사를 하는 영유아와 교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 ❷ <그림 2>와 같이 스스로 선택한 인사로 어린이집의 하루를 시작(마감)하는 영유아와 교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 ❸ 영유아에게 다양한 인사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영유아 권리 존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❹ 등·하원 시, 영유아의 의사표현과 참여, 자유로운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교사의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등·하원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인권 문 열기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 눈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목적지(★)까지 길을 따라가 보세요(길 안내자는 눈감은 상대방이 선을 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설명해주세요).



▶ 준비물: A4용지, 두 가지 색상의 두꺼운 펜

▶ 진행 방법:

- ① 두 명이 짝을 이룹니다.
- ② 길을 설명할 안내자와 목적지를 향해 갈 사람을 정합니다.
- ③ 위 예시의 그림과 같이 목적지가 있는 길을 그립니다.
- ④ 목적지를 향해 갈 사람은 눈을 감은 뒤, 길 안내자의 설명을 잘 들으며 준비한 펜을 시작점(화살표→)을 따라 선을 그으며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합니다.
- ⑤ 다음으로 두 사람의 역할을 서로 바꾼 후, 색상이 다른 펜을 사용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⑥ 서로가 그려간 길의 모양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 의미 되새기기:

이 활동은 서로 다른 생각의 서로 다른 생각의 지형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조직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의 지형도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 교직원, 양육자와 함께 하는 보육공동체,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공동체 내 구성원의 생각에,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나요?’

워크시트 1-2

사례 「하원 배웅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와 「차량 운행으로 한꺼번에 하원 해요」를 통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가치 실현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등·하원시간이 운영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사례 1

대상 : 만 2세 유아

하원 배웅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에는 하원시간에 특별한 관심 받기를 원하는 지안이라는 아이와 하루 일과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태희 할머니가 계세요. 어느 날 지안이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오는 바람에 지안이 일찍 하원을 하게 됐고, 덩달아 다른 아이의 배웅과 겹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의 하원 시간이 복잡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교사로서 하원 배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힘들게 됐고, 지안은 시무룩한 표정이 되었어요. 게다가 태희 할머니의 궁금함은 점점 더 많아져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배웅이 지원되지 못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례 2

대상 : 만 4세 유아

차량 운행으로 한꺼번에 하원 해요.

우리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날 즈음, 유아들은 스스로 수첩과 자신이 가져갈 물건을 가방에 챙겨요. 교사는 가방을 메고, 옷을 입고 줄 맞춰 대기하고 있는 유아들을 차량시간에 맞춰 우르르 내보내게 돼요. 안전이 제일 걱정되지만 돌아가면서 차량 지도하는 선생님 도움 아래 하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의 개별적 욕구나 요구까지 일일이 신경 써 주기 힘들어요.

- ❶ <사례 1, 2> 상황에서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❷ 권리가 존중되는 즐거운 등·하원이 되려면 교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 ❸ 등·하원 시, 우리 반 영유아들의 권리존중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2. 급·간식과 낮잠 시간

1) 급·간식 시간이 즐거워요!

인권 문 열기

몸으로 말해요



▶ **준비물:** 제시어 카드 2세트, 책상 2개

▶ 놀이 방법:

- ① 구성원 한 명 당 하나의 제시어를 카드에 2장씩 씁니다.
- ② 양쪽에 책상을 놓고, 제시어 카드를 양쪽 책상 위에 1세트씩 얹어서 늘어놓습니다.
- ③ 구성원들이 책상 사이에 일렬로 서고, 인원수가 많으면 팀 수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 ④ 오른쪽 맨 끝 사람이 카드 중 하나를 열어보고 몸짓으로만 그 내용을 다음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 ⑤ 왼쪽 맨 끝 사람이 자신이 이해한 제시어를 소리 내어 말합니다.
- ⑥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제시어를 말하여 맞고 틀림을 확인합니다.

▶ 의미 되새기기:

‘몸으로 말해요’놀이는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들이 몸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표정, 움직임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직원, 양육자는 모두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 놀이를 하는 동안 몸으로 말하는 구성원의 몸짓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를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몸짓언어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워크시트 2-1

사랑반은 만 1세 5명의 영아가 함께 생활한다. 교사는 산책을 다녀온 후 영아들의 손을 씻기고 아기의자를 꺼내서 한 명씩 앉히기 시작한다. 교사가 연두색 의자를 꺼내 여름이에게 앉아보자고 하니 여름이는 손가락으로 빨간색 의자를 가르키며 ‘어! 어!’라고 소리낸다. 교사는 얼른 빨간색 의자를 꺼내 여름이를 앉혔다. 지훈이의 눈에는 졸음이 가득하고 저절로 눈이 감긴다. 하민이는 손가락을 빨기 시작한다. 지훈이는 교사가 꺼내준 의자에 앉는다. 교사는 배고프면 손을 뻗는 하민이 먼저 식사를 준비해주고 다른 친구들도 서둘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식하였다. 민지는 얼굴을 찡그린 채 버섯불고기 중 고기만 골라먹고 버섯을 먹여줘도 계속 입에 머금고 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말하고 영아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반찬을 이것저것 밥에 올려주며 ‘냠냠’소리를 내며 빨리 씹어 삼키자고 상호작용한다. 보통 식사지원 시 식사의 절반 정도는 교사가 먹여주고 절반 정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먹도록 식사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여름이와 지훈이가 처음부터 교사가 먹여주던 손가락을 움켜쥜다. ‘빨리 먹이고 낮잠을 재워야하는데... 처음부터 손가락을 쥐도록 허용해주면 먹는 양은 적고 대부분 흘릴 텐데...’ 교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지훈이는 아침을 먹지 않고 등원했으니 밥을 든든하게 먹여주세요.’라고 부탁한 지훈이 엄마의 말씀도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교사는 어렵기만 하다.

1 급·간식시간에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자세히 관찰해봅시다.

영아의 표현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나요?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에 담긴 영아의 의도를 생각해 본 후, <워크시트 표 2-1-1>에 기록해 봅시다.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영아의 의도
빨간 의자를 가리킨다	
저절로 눈이 감긴다	
손가락을 뺏다	
얼굴을 찡그린 채 버섯을 입에 계속 머금고 있다	
교사가 든 손가락을 움켜쥜다	

<워크시트 표2-1-1> 사례 속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읽기

❷ <워크시트 표 2-1-1>의 기록을 바탕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읽기에 대해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❸ 급·간식에 영유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급·간식을 즐거운 경험으로 지원하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워크시트 표 2-1-2>를 보면서 세부내용을 점검해봅시다.

환경요인	세부 내용	표시	
		○	×
나 (교사)	① 즐겁게 먹는 것보다 잘(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급·간식을 영아가 경험해야 할 중요한 일과로 보지 않는다.		
	③ 영아의 의견보다 부모의 요구에 따른다.		
	④ 급·간식 시간에 매우 힘들고 지친다.		
가정	① 부모가 급·간식을 무조건 충분히 먹여달라고 요구한다(가정에서의 요구).		
	② 영아에게 유동식만 먹인다.		
	③ 음식을 양육자가 전적으로 먹여준다.		
	④ 가정에서 음식을 돌아다니며 먹인다.		
어린이집	① 급·간식 시간이 너무 짧다(예: 특별활동이 바로 이어짐).		
	② 보조인력이 부족하다.		
	③ 메뉴의 종류나 제공형태가 영아가 먹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급·간식 관련 양육자의 요구를 우선 수용하라고 요구한다		

<워크시트 표2-1-2> 급·간식 관련 환경요인 점검

2) 낮잠 시간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인권 문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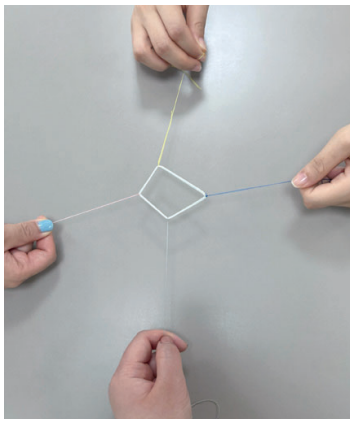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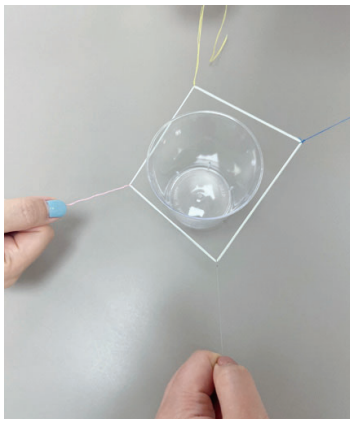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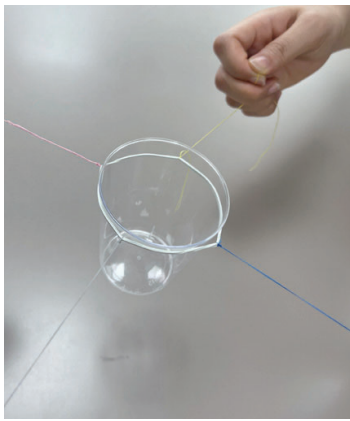
서로 마음을 맞춰 컵을 쌓아보아요

🔊 손으로 직접 컵을 잡지 않아도 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성원 간 아이디어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적용한 놀이를 해봅시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구성원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함께 컵을 쌓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 준비물: 고무밴드, 컵, 실

▶ 진행 방법:

① 3~4명의 구성원이 팀을 구성합니다.

		
② 팀의 구성원 수대로 고무줄에 실을 길게 맵니다.	③ 구성원은 그 실을 하나씩 잡고 잡아당겨 고무줄을 벌립니다.	④ 벌려진 고무줄로 컵을 잡아 옆으로 옮겨 쌓아 올립니다.

⑤ 구성원 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놀이합니다.

⑥ 놀이 후, 놀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의미 되새기기:

이 놀이는 구성원 간 하나의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하는 놀이입니다. 놀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생각을 격려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실행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언어적인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 구성원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몸으로 함께 놀이하며 긴장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워크시트 2-2

아기다람쥐반은 만 2세반으로 14명의 아이가 두 명의 교사와 함께 생활한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번갈아 실시하게 되어서 5월 초인 지금도 여전히 적응 중인 아이가 많고 안정적인 낮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낮잠을 자려고 이부자리를 준비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수린이, 베개에 올라타서 자동차를 타는 놀이를 하는 가람이, 눈을 마주보고 토닥여주면 뒹굴뒹굴 하다 잠드는 선호, 돌이 장난이 심해도 항상 붙어서 자려고 하는 쌍둥이 민진이와 민주. 민진이는 잠이 안 오는지 눈을 말뚱말뚱 뜨고 있고, 민주는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이들이 어렵게 낮잠에 들면 교실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낮게 흐른다. 하지만, 잠든 지 15분쯤 지난 후 울다 잠든 수린이가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고 나에게 온다. 쌍둥이인 민진이도 30분 정도 자면 일어나 민주를 깨운다. 민진이 엄마는 늘 낮잠을 더 많이 재워달라고 부탁하시지만 민진이는 잠이 짧고 일어나 놀고 싶어 한다. 오늘도 민진이가 깨우자 민주는 졸린 눈으로 일어나 짜증을 낸다. 가람이는 한 시간 정도 후에 일어난다. 선호는 소음에도 개의치 않고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일어난다. 영아마다 모두 다른 낮잠 시간을 개별적으로 민감하게 지원하는 일이 고민이다.

- 1 사례 속 낮잠 시간에 나타나는 영아의 모습을 관찰하고 영아들의 요구/욕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름	영아 모습	영아의 요구/욕구
수린	이부자리를 준비하면 울	
가람	베개에 올라타 자동차 놀이함	
선호	뒹굴뒹굴 하다 잠들	
민진	민진이는 민주를 깨움	
민주	졸린 눈으로 일어나 짜증을 낸	

<워크시트 표 2-2-1> 사례 속 영아의 경험 이해하기

- 2 낮잠 시간에 관찰되는 우리반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요구/욕구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름	나타나는 모습	개별 요구/욕구

<워크시트 표 2-2-2> 우리 반 영아들의 낮잠시간 개별 요구/욕구

- 3 교사가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낮잠을 지원하기 어려운 원인이 될 만한 환경요인을 찾아봅시다.

환경요인	세부 내용	표시	
		○	×
나 (교사)	① 낮잠은 한꺼번에 자고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영아의 다양한 요구에 둔감하다.		
	③ 잠을 자지 않겠다는 영아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④ 나의 체력은 약한 편이다.		
가정	① 평소 영아의 수면시간이 불규칙적이다.		
	② 특별한 스트레스 상황(동생 임신 및 출생 등)이 있다.		
	③ 영아의 욕구보다 낮잠을 얼마만큼 자야 한다는 부모 의견이 강하다.		
	④ 집에서 낮잠 자는 것을 싫어해 잘 재우지 않는다.		
어린이집	①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너무 많다.		
	② 바깥놀이를 자주 하지 않는다.		
	③ 낮잠환경(채광 및 소음 등)이 적절하지 않거나 공간이 좁은 편이다.		
	④ 낮잠을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워크시트 표 2-2-3> 낮잠지원 관련 환경요인 점검

- 4 어린이집 윤리강령은 등원부터 하원까지 모든 일과 안에서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대할 때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켜야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윤리강령>을 찾아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나는, 급·간식과 낮잠 시간에도 영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을 1) _____로 존중할 것입니다. 일과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 보다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며, 보육과정 전반에 2) _____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3) _____하게 대하며, 영유아의 바람과 감정이 무엇인지 4) _____것입니다.

※ 빈칸의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1) 독립된 인격체 2) 영유아의 이익 3) 평등 4) 항상 귀 기울일



3. 바깥놀이 시간

1) 바깥놀이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인권 문 열기 호감이 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 호감이 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찾아보세요^^

A와 B는 얼굴의 일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얼굴에 호감이 느껴지나요?

아래 () 안에 표시하고,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기록하고 설명해 보세요.



A ()

이유 :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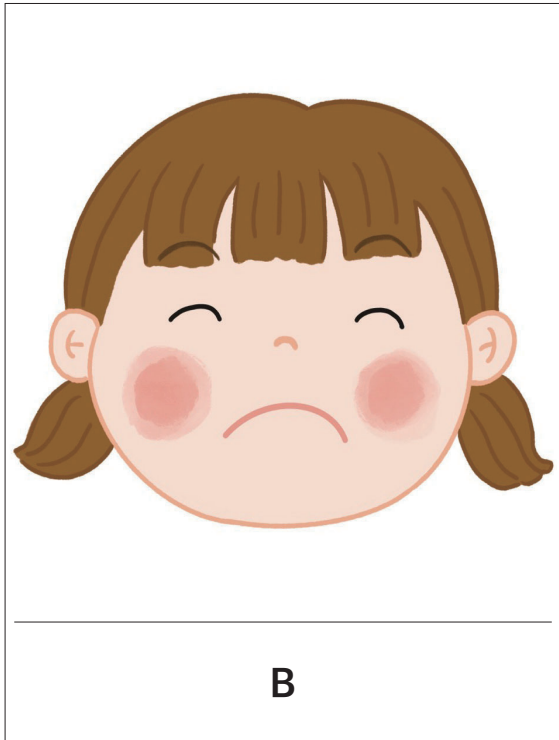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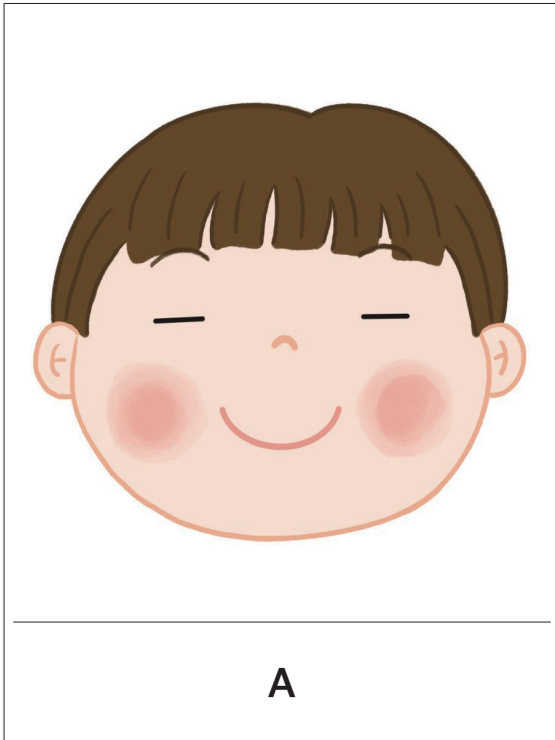
이유 :

▶ 준비물: 워크시트, 펜

▶ 진행 방법:

- ① '호감이 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워크시트를 나눠줍니다.
- ② A와 B 중 호감이 가는 얼굴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③ 작성한 내용을 서로 공유합니다.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 ④ 얼굴 전체가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며 자신의 선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 완성된 얼굴 중 어떤 얼굴에 호감이 더 느껴지시나요?



다음과 같이 얼굴이 완성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얼굴에 호감이 가시나요? A인가요? B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의미 되새기기:

우리는 편견을 갖고 어떤 일을 규정짓거나 결론을 내리는 행동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전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갖고 있던 생각과 관점이 새로운 시도를 할 경우 혼란스럽게 하며 행동을 제한하게 하기도 합니다.

‘호감이 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활동에서 경험했듯이, 바깥놀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며 바깥놀이가 영유아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바깥놀이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관점, 신념)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으로 바깥놀이를 생각하고 실행하면 영유아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바깥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시트 3-1

바깥놀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깥놀이 상황입니다. 함께 관찰해보세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생각해 봅시다!

 바깥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 1, 2, 3, 4, 5]를 보고, 바깥놀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생각해 봅시다.

- ❶ 아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 ❷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 ❸ 이 놀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내에서의 놀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워크시트 3-2

“나는 바깥놀이에 대해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 있어요.”

다음의 문항을 읽고 나 자신이 그런 고민이나 행동을 한 적 있다면 YES, 없다면 NO 칸에 체크 해보세요.

구분	나는 바깥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 고민이나 행동을 한 적 있어요~	YES	NO
1	바깥놀이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아 힘들어서 나가고 싶지 않은 적이 있다.		
2	오늘 미세먼지가 나뻐지면 바깥놀이 나가지 않아도 되어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다.		
3	밖에 나가고 싶다고 신호를 하거나 나가자고 말하는 아이의 반응에 모른 척한 적 있다.		
4	○○이를 데리고 바깥놀이 나가는 게 어려워져서 ○○이가 바깥놀이 시간 이후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5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나가는 게 꺼려진다.		
6	실내에서도 충분히 대근육 놀이를 할 수 있기에 ‘위험요인이 많은 바깥놀이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7	바깥놀이를 다녀오면 아이들이 더 흥분해서 이후 일과에 방해가 되어 나가기가 꺼려진다.		
8	평가만 아니면 바깥놀이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		

<워크시트 표 3-2-1> 바깥놀이 고민 돌아보기

- 체크한 내용에서 YES 와 NO 중 어느 쪽이 많은가요? ()
- 서로의 기록을 공유하며 바깥놀이의 중요성은 알지만 꺼려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 아래 <워크시트 표 3-2-2>를 작성해 보고, 바깥놀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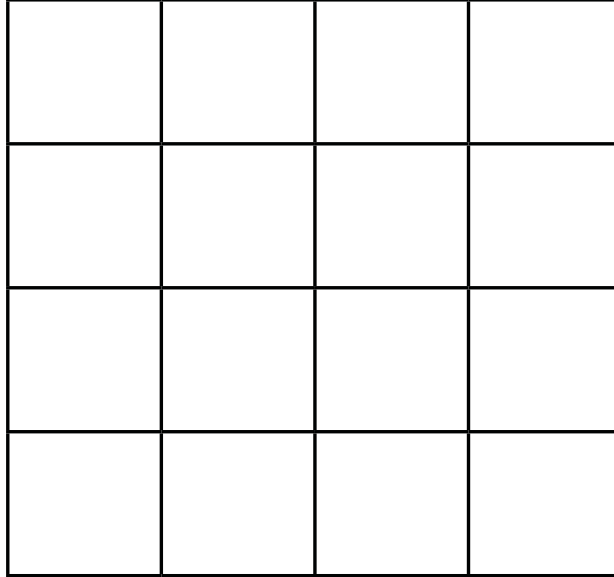
구분	교사 측면	어린이집 측면	부모 측면
아이들의 기본권인 바깥놀이를 충분히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바깥놀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워크시트 표 3-2-2> 바깥놀이 어려움의 해결방안 생각해보기

2) 안전하고 즐거운 바깥놀이를 하고 싶어요

인권 문 열기

내가 좋아했던 바깥놀이를 알아 맞춰봐~ 빙고게임



▶ 준비물: 워크시트, 펜

▶ 진행 방법:

① 내가 좋아했던 바깥놀이 알아 맞춰봐~ 빙고게임 워크시트를 나눠 줍니다.

② 게임 방법을 설명합니다.

- 네모 칸에 바깥놀이 이름(종류)을 모두 기록합니다.(예: 사방치기, 구슬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 모두 작성한 후 한 명씩 돌아가며 한가지씩 바깥놀이 이름을 말합니다.
- 말한 것과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칸에 X표를 하며 지워나갑니다.
- 가로, 세로, 대각선 등 4개 줄을 먼저 완성한 교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2줄 정도로 완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내가 좋아했던 바깥놀이 알아 맞춰봐~ 빙고게임을 진행합니다.

④ 빙고게임이 끝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바깥놀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추억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⑤ 바깥놀이 경험이 각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해봅니다.

▶ 의미 되새기기:

빙고게임을 통해 어렸을 적 바깥놀이 경험을 떠올려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바깥놀이 경험과 추억을 떠올리며 교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깥놀이에 대한 생각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추억을 떠올리며 바깥놀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워크시트 3-3

바깥놀이 상황 중 다음 장면이 발생할 경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만 2세반 14명 영아들과 교사 2명이 함께 하는 바깥놀이 상황입니다.



1) 상황 A

바깥놀이 이동 시 두 줄로 차례차례 줄 서서 가요~

바깥놀이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두 줄로 서서 친구의 손을 잡고 차례차례 걸어갑니다. 교사는 앞에서 줄을 맞추도록 손짓을 하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때 길 중앙에 비둘기 3~4마리가 내려앉더니 먹이를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비둘기다”라고 말하며 친구 손을 끌어당기며 비둘기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교사는 줄에서 벗어난 아이들에게 “안 돼. 어서 제자리로 오세요. 줄 서야지.”하며 아이들을 불러 다시 줄서기에 합류시킵니다.



2) 상황 B

모둠별 활동 할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바깥놀이 장소에 도착하여 모둠별 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둠 1은 나뭇잎으로 천에 장식하기, 모둠 2는 자연물을 가지고 음식만들기, 모둠 3은 흙놀이하기입니다. 3~4명의 아이들이 주어진 모둠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둠 1의 준영이가 모둠 영역에서 벗어나 주변을 빙빙 돌아다닙니다. 이때 교사는 “준영아, 다른 데 가면 안돼~” 라며 준영이가 모둠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3) 상황 C

나무꼬챙이는 만지지마~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를 탐색하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태민이가 바닥에서 이것저것을 만지작거리더니 작은 나무꼬챙이로 땅바닥을 긁고, 그림을 그리는 듯하더니, 하나를 집어 들고 일어서서 지휘하듯 휘두르며 뛰어다니는 친구들 뒤를 쫓아 뛰고 있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태민이에게 “멈춰. 나무꼬챙이는 내려놓으세요!”라고 합니다.



4) 상황 D

경사로 언덕은 위험해! 올라가지마

놀이하는 공간 중 한쪽에 낮은 경사로 언덕이 있습니다. 그 경사로를 민수와 진희가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철수가 이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얘들아, 하지 마! 위험해.”라며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상황 A, B, C, D 내용을 읽고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이들은 어떤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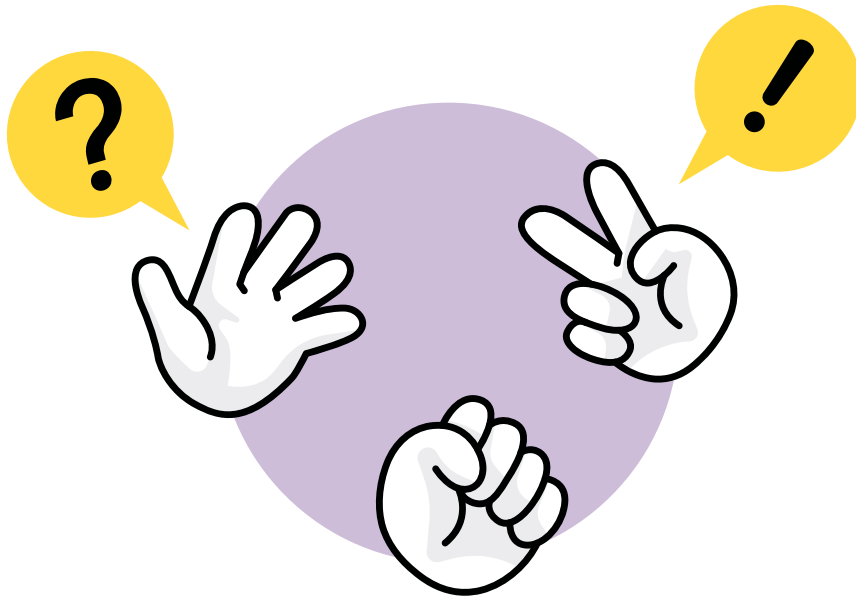
- 논의 후 해설서 90~93p를 함께 읽어봅시다.
- 만약 바뀐 생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 나눠봅시다.



4. 실내놀이 시간

1) 나는 신나게 놀고 싶어요!

인권 문 열기 반대로 가위바위보



▶ 준비물: 함께하는 선생님들

▶ 진행 방법:

- ① 참여 교사 2명이 짝을 지어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 ② 노래(풍당풍당 돌을 던지자)에 맞춰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때, 이긴 사람은 맞잡은 상대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진 사람은 맞지 않기 위해 오른손을 꺾어 막습니다.
- ③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 사람이 치고, 이긴 사람이 막습니다.
- ④ 이를 각각 5번씩 해보고 소감을 나눕니다.
이겼을 때 치는 것과 졌을 때 치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이 더욱 편한지 이야기 나누고,
낯선 방식의 게임을 처음 했을 때와 반복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느껴졌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의미 되새기기:

‘반대로 가위바위보’는 기존에 정해져 있던 방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교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느껴지더라도 반복적으로 시도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4-1

구름반 친구들은 좋아하는 놀이가 다 다르다. 지호가 좋아하는 놀이는 의자 위에 올라가 슈퍼맨 놀이하기와 칼싸움, 잡기 놀이를 하는 것이고, 민서는 블록 쌓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지호는 늘 선생님의 감시를 받는 친구이다. 교사는 지호에게 “지호야.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요”, “친구랑 장난치지 않아요”, “교실에서 뛰지 않아요.”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하루는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민서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였고, 한쪽에서는 지호가 주말에 봤던 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감 자동차를 이어 붙이고 있다. 옆에는 민준이와 건우도 함께 놀고 있었다.

지호: (자동차를 앞뒤로 크게 굴리면서) 기차 진짜 빨라.

이를 본 교사는 지호에게 다가가 자동차를 크게 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장난감 자동차로 기차를 만들던 민준이는 다른 기차놀이를 제안하였다.

민준: 우리 사람 기차 놀이하자.

민준이가 기차의 가장 앞부분이 되었고, 이어서 건우가 민준이의 허리를 잡으려고 하자 2번째가 하고 싶었던 지호가 건우를 밀쳤다.

건우: 아! 선생님한테 이른다.

민준: 괜찮아? 다음번에는 네가 2번째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하자.

건우: 아! 알았어. 이번에는 지호 너 먼저 해.

그렇게 민준이와 지호, 건우의 순서로 서로의 허리를 잡고 기차를 만들었다. 기차는 조금 전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를 피해 요리조리 걸어 다니다가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기차가 빨라지자 신이 난 지호는 민준이의 허리에 손을 놓고 교실에서 더 빠르게 달렸다. 신나게 달리기를 하는 지호의 앞에 민서의 블록이 놓여 있었고, 지호는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블록을 발로 차서 무너뜨렸다. 결국, 민서는 울음이 터졌다.

●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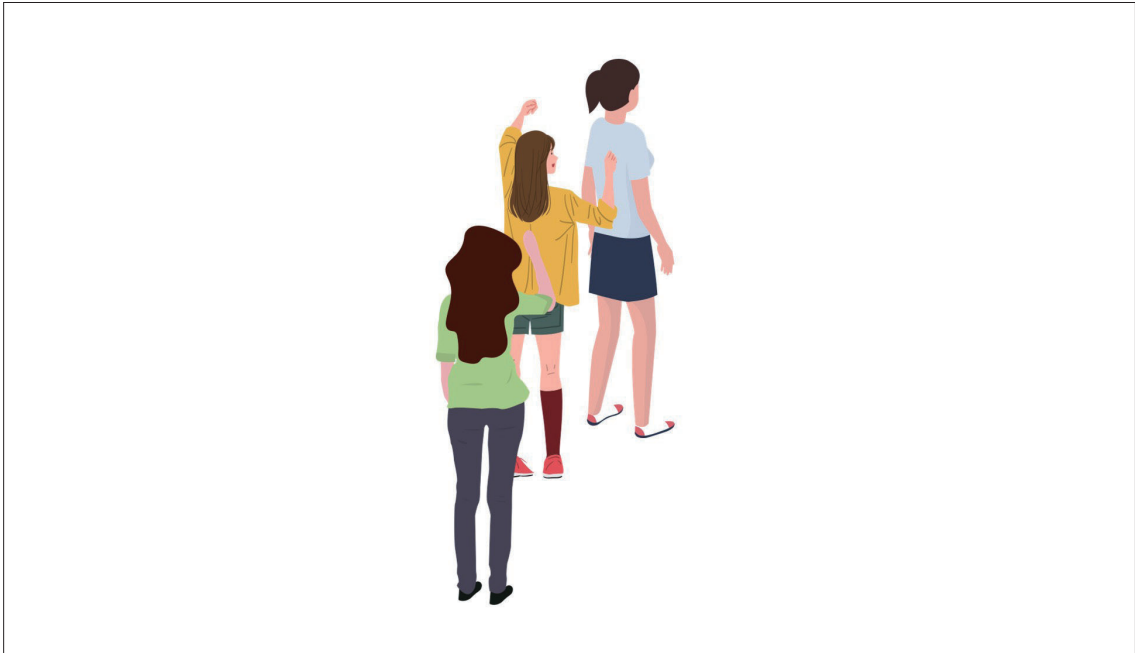
- 지호는 어떤 아이인가요?
- 교사가 지호의 행동을 제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차놀이를 하는 지호와 민준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지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호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 건우와 민서의 기분은 어떨까요?
-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 지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훈육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이 사례를 영유아 권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봅시다.

● 지호의 거친 신체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존중해주세요

인권 문 열기 등에 그림 그리기



▶ 준비물: A4 용지, 펜

▶ 진행 방법:

- ① 참여 교사 2명이 짝을 지은 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앞사람의 등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교사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림을 종이에 따라 그립니다.
- ② 이번에는 3명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줄로 앉아 맨 뒷사람이 바로 앞사람의 등에 그림을 그리고, 2번째에 앉아 있던 교사는 뒷사람이 등에 그린 그림을 감각으로 느껴 앞사람의 등에 그립니다.
- ③ 다음에는 4명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봅니다.
- ④ 그림을 전달하는 입장과 전달받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고, 2명이 할 때와 3명, 4명이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의미 되새기기:

‘등에 그림 그리기’는 다른 사람의 표현에 집중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활동 인원이 늘어나면서 전달되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이를 함께 조율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4-2

김 선생님은 만 1세반 담임 보육교사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의 감각발달을 위해 물감 놀이를 자주 하였다. 하루는 지민이 어머니가 옷이 더럽혀지는 문제로 물감 놀이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김 선생님은 놀이의 중요성과 물감 놀이를 즐겁게 하는 지민이의 반응을 전하며 어머니를 설득하였다.

다음 날 김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물감 놀이를 하게 되었다. 신이 난 지민이는 옷에 물감을 묻히면서 놀이를 계속 하다 물감 놀이 이후 여벌 옷으로 갈아입히고 일과를 마무리하였다. 하원 시간에 지민이 어머니에게 옷에 물감이 묻어 갈아입혔음을 전달하였더니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었지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지민이는 자유놀이 시간에 물감 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이 떠오른 김 선생님은 지민이에게 오늘은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지민이는 소리 지르고 떼쓰기 시작하였다. 지민이의 반응에 놀란 김 선생님은 지민이가 물감 놀이를 하도록 허락했고 이후 물감 놀이를 못 하게 하려고 하면 지민이의 떼쓰는 행동이 계속되었다.

얼마 동안 물감 놀이는 계속되었고, 지민이의 옷은 몇 번 더 더럽혀졌다. 어느 날 지민이 어머니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린이집으로 전화가 와 아이의 옷이 더러워져 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며 물감 놀이의 횟수를 줄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달라고 하였다. 다음 날 지민이와 다른 아이들은 물감 놀이를 하려고 물감이 있는 곳으로 다갔다. 하지만 전날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 마음에 걸린 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수요일만 물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물감 놀이를 하지 않아요.”라고 하였다. 물감 놀이를 못 하게 하자 지민이는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떼쓰기 시작하였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여기저기 던져버렸다.

이 모습을 본 김 선생님은 가정에서의 요구와 아이의 욕구가 상충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 사례에서 나타난 교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교사가 물감 놀이를 수요일만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결정을 하기 전 아이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았나요?
- 실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나요? 그때 어떠한 개입을 하였나요?
- 동료 교사들과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 이 사례를 영유아 권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봅시다.

● 아이들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평가도구¹⁾

영유아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존중 (5문항)	전혀 수행 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항상 수행
나는 영유아의 말에 담겨있는 요구, 불편함, 정서 등을 읽는다.	1	2	3	4
나는 영유아가 표현하는 기쁨, 슬픔, 부끄러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에게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 태도,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특성을 알고 존중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표현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한다.	1	2	3	4
총점				
영유아 교수-학습 계획과정에서의 권리존중 (8문항)	전혀 수행 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항상 수행
나는 잦은 정리시간으로 인해 영유아가 놀이를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나는 교실규칙을 영유아들과 함께 정하고 상황에 따라 논의하여 규칙을 바꿀 수 있음을 알려준다.	1	2	3	4
나는 영유아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말하며, 일방적인 설명이나 통제, 지시를 하지 않는다.	1	2	3	4
나는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정된 흥미영역이 아닌 개방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1	2	3	4
나는 놀이의 맥락과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내/외 공간을 구성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사전 경험과 흥미가 반영된 다양한 자료와 놀잇감을 제공한다.	1	2	3	4
나는 변형, 생성, 전개되는 놀이 맥락에 맞게 적절한 환경(교구장 배치이동, 자료제공 등)을 즉각적으로 지원한다.	1	2	3	4
나는 개별 영유아와 교실 전체의 요구 및 흥미 간에 균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예: 이야기나누기, 물리적 공간 재구성 등)	1	2	3	4
총점				
영유아 교수-학습 실행과정에서의 권리존중 (4문항)	전혀 수행 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항상 수행
나는 진정한 놀이를 위해 영유아의 자발성, 주도성, 능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나는 일상적으로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과 관심, 흥미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전략 변경 및 창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2	3	4
나는 놀이 중 일어나는 영유아의 다양한 정서(좌절, 걱정, 신남 등)에 대해 늘 공감해준다.	1	2	3	4
총점				
영유아 교수-학습 평가과정에서의 권리존중 (6문항)	전혀 수행 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항상 수행
나는 영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자료 준비, 영유아 놀이와 관련한 활동, 일과에 대한 계획을 일지에 적어 다음날을 준비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지 매일 성찰한다.	1	2	3	4
나는 놀이 실행중이나 후에 영유아의 흥미, 요구, 관심을 반영했는지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매일 기록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관찰하여 영유아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급/간식, 낮잠 등) 관찰하여 일지에 기록한다.	1	2	3	4
나는 보육(교육)과정의 방향과 진행을 영유아 및 공동체 구성원(교직원 및 부모)들과 함께 결정하고 있는지 매일 반성한다.	1	2	3	4
나는 일과 운영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1	2	3	4
총점				

1) 임승렬, 이주영, 이민지(2021),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평가도구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과 권리, 25(4), 491-510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본 체크리스트의 문항은 영역별 영유아권리존중 수행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을 체크하며, 어떤 영역과 문항에서 권리존중이 잘 이뤄지고, 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교사 간 자율 장학 모임을 통해 교사들과 좋은 사례와 방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Tip

영역별 권리존중 점수 알아보기

만약 영역별 권리존중 수준을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싶다면, 백분위 점수변환을 통해 영역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시) (일상생활 영역) 점수: 16점, 총점: 20점

백분위 점수 변환: $16/20 \times 100 = 80\%$

(교수-학습지원계획 영역) 점수: 28점, 총점: 32점

백분위 점수 변환: $28/32 \times 100 = 87\%$

이때 영역별 점수는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체크리스트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영역'과 '어려움이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척도(PSS)²⁾

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때때로 있음	자주 있음	매우 자주
1	최근 1개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0	1	2	3	4
2	최근 1개월 동안,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0	1	2	3	4
3	최근 1개월 동안,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0	1	2	3	4
4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끼셨습니까?	4	3	2	1	0
5	최근 1개월 동안,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	3	2	1	0
6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0	1	2	3	4
7	최근 1개월 동안,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4	3	2	1	0
8	최근 1개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4	3	2	1	0
9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0	1	2	3	4
10	최근 1개월 동안,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0	1	2	3	4
총점						

점수	결과
12점 이하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13~19점	일반 성인의 평균 이하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업무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는 업무와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평상시 나의 스트레스를 잘 지각하고 해소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땐 가까운 전문기관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점~25점	일반 성인의 평균 이상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 업무적, 관계적 문제로 인한 주관적 불편감 및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및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6점 이상	일반 성인 기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심리·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까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2) 국립건강센터(2020),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p.51